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모모영판

· 3월 2주차 ·

해설편

일주일에 5문항으로 가볍게 끝내는
생활과 윤리 주간지!

“Are You Ready For This?”

점심생운 3월 2주차

점심생운™

김지호 (저동고)
김영우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김지호 (윤리교육 전공)
안재현 (건국대 경영학과)
양승언 (강원대 윤리교육과)
유영우 (대인고)
이동욱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진해인 (교육학 전공)
홍찬혁 (인하대 경영학과)
김보민
문인성
이수진
이현승

외 1인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펴 낸 일 2024년 03월 10일
펴 낸 곳 점심생운™
저 자 점심생운™
문 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운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운™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 3월 2주차 ·

해설편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영역 ·

생활과 윤리 정답

1	⑤	2	④	3	④
4	④	5	③		

해설

1. 노자와 공자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 을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의 입장이다. 노자는 이상 사회로 소국과민(小國寡民), 즉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를 제시한다. 또한 노자는 문명의 기계와 사회 규범이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게 한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이상 사회로 대동(大同)사회를 제시한다.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란 인(仁)과 예(禮)를 기반으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직위를 맡고 공동체를 공적인 것으로 여기며 사회의 화합을 위해 힘쓰는 사회이다.

[정답 찾기]

⑤ 공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공자에 따르면 인(仁)은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이러한 인(仁)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공자는 충(忠)과 서(恕)를 강조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으로부터 미루어 보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교 윤리는 성실과 배려를 도덕적 삶의 실천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로서 충(忠)과 내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서(恕)의 방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사랑인 인(仁)을 실천하고자 한다.

[비상 생운 교과서]

공자와 달리 노자는 유교의 인위적 윤리를 비판하며, 인(仁)을 인위적인 사회 규범으로 파악한다. 노자는 무위의 덕을 강조하며 무위의 덕으로 행하면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無爲之治].

대도(大道)가 사라지면 인(仁)과 의(義)와 같은 것이 나시고, 지략(智略)이니 지모(智謀)니 하는 것이 설치면 엄청난 위선이 만연한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孝)나 자애[慈]와 같은 것이 나시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생겨난다.

[노자, 『도덕경』]

[오답 피하기]

① 노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자는 이상 사회의 모습이란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백성들이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각종 인위적인 도구와 제도들이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개인의 욕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노자의 입장에도 관련된다. 따라서 노자의 입장에서는 인위적 문명에 해당하는 배와 수레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한다고 본다.

(소국 과민의 사회에서는)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걸 탈 곳이 없으리라, 비록 갑옷 무기가 있어도, 그걸 펼칠 데가 없게 하라. …(중략)… 자신의 먹거리를 달게 여기고, 자신의 입을 옷을 곱게 여기리, 자신의 사는 곳을 편히 여기고, 자신의 습속을 즐겁게 여기리.

[노자, 『도덕경』]

사람들이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들이 더욱 생겨난다. 법령이 더욱 분명해지면 도적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내가 무위하니 백성들이 절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들이 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무욕하니 백성들이 절로 소박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노자, 『도덕경』]

② 노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자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통치자를 제시한다. 노자는 통치자가 무엇을 하는지 백성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2020학년도 수능 (윤사)]

노자: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無爲]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2015학년도 6평 (윤사)]

- ③ 공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자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고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자에게 고른 분배란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으며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화가 적절하게 분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가 동일한 양의 재화를 나눠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인과 예를 강조한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통치자는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요약]

- ④ 공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자는 가족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순서라는 것에는 공자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공자는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시작한 사랑을 확장하며 도덕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 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인 사랑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공자가 제시한 대동 사회는 누구나 현명하고 유능하다면 등용되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또한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이며, 자기 부모나 자식을 구분하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공동체이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공자는 효제를 인을 행하는 기본 덕목으로 중시하였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만 인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천 범위를 넓혀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상 윤사 교과서]

2. 레건, 칸트, 테일러의 자연관 비교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값은 레건, 올은 칸트, 병은 테일러이다.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삶의 주체들이 갖는 도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닐 수 있으며, 인간 이외의 존재와 관련하여 갖는 의무는 모두 직접적 의무로 환원된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추구하며, 그러한 개체들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이 그들을 자연 존중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ㄴ. (레건 X, 칸트 O, 테일러 X)

칸트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오직 인간이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이외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어떤 동물도 자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동물들은 단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며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인간은 목적이므로 더 이상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칸트, 『도덕 철학 강의』]

(위 발췌문에서는 ‘모든 동물’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였으나, 평가원이 단독으로 사용된 ‘모든 동물’에 인간을 포함시킬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여 선지에서는 ‘모든 비이성적 존재’로 칭하였음.)
레건과 테일러는 동물도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ㄹ. (레건 O, 칸트 X, 테일러 O)

레건과 테일러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도덕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혹은 부도덕하게 행위할 수 있는 존재를 일컬으므로 보통 인간을 의미하며, “도덕 무능력자”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지 않는 인간 이외의 존재를 뜻한다. (테일러의 경우 도덕 행위자 개념에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심화 보충 설명을 참고.)

레건과 테일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끼리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레건의 경우 삶의 주체, 테일러의 경우 생명체가 이에 해당한다.

그들이 도덕적 행위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

[레건, 『동물권 옹호』]

우리는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간주한다. 도덕 행위자로서 인간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로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존재의 선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한 존재의 선이 다른 존재의 선과 상충할 때,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는 초기 단계에서 편견을 버려야 하는 의무를 인식한다. 모두 동일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간주하므로, 우리는 각 존재를 마땅히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반면 칸트는 인간만이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테일러 ‘도덕 행위자’ 보충 설명》

* 테일러의 ‘인간 이외 도덕 행위자’ 개념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매우 적다. 따라서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이라고 판단 후에 넘어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이에 대해 궁금해할 학생을 위해 이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테일러는 인간 이외의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행위자이지만 인간이라는 종이 아닌 존재가 있다. 우리 행성이나 우주의 다른 곳에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구상 인간 외의 존재들도 인간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감각이 발달했다. 테일러는 이의 예시로 돌고래를 들었는데, 돌고래도 인간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며, 교대로 사냥을 하여 식량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선을 넓게 보았을 때, 도덕적 행위자 조건(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 의무와 책임감)에 부합하는 존재는 꼭 인간뿐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테일러의 추측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테일러가 단정적으로 인간 이외의 도덕 행위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테일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동기를 추측해보자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테일러는 기존 환경 윤리학에 지배적인 ‘도덕 행위자의 분류는 인간의 분류와 동일하다’는 견해는 그릇된 견해라고 비판하며 다음 두 가지의 반례를 제시한다.

- ① 모든 인간이 도덕 행위자는 아니다
- ② 인간 외의 도덕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살 이상의 포유동물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로 간주하여, 그들을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건에 의하면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서 이용할 때에도 동시에 목적으로서 갖는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맹인 안내견이 있다.

가령 맹인이 맹인견을 사용하지만 그 개를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는 경우처럼,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건, 『동물권 옹호』]

또한 ‘한 살 이상의 포유동물’은 생명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테일러의 입장에서도 적절하다. 테일러는 인간이 생명체들을 한낱 수단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칸트는 인간만이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동물 학대와 자연 파괴는 인간의 도덕성을 손상시키므로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ㄷ. (레건 O, 칸트 O, 테일러 O)

레건, 칸트, 테일러 모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레건에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는 삶의 주체이다. 레건은 삶의 주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여, 그들이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받는 대우를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런 개체들은 엄격한 정의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갖는 가치[내재적 가치]를 존중받는 식으로 마땅하게 처우받아야 하고, 모든 개체는 이 처우를 동등[평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건, 『동물권 옹호』]

칸트에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는 인간이다. 칸트는 이성과 자율성을 지니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7. (레건 O, 칸트 X, 테일러 O)

레건과 테일러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레건은 한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중략)…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테일러는 인간이 자연 존중의 태도를 취하여 모든 생명체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간주해야 마땅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으로 고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에피쿠로스, 플라톤의 죽음관 비교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좋고 나쁜은 감각에 달려있으며, 살아 있을 때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죽게 되면 감각을 잃게 되므로 죽음은 고통이 아니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인간이 죽음을 통해 영혼의 순수한 사유를 방해하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에 감으로써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④ 플라톤은 죽음을 최상의 사유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본다. 감각은 육체에 귀속되며, 이는 영혼의 이성적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플라톤은 진정으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은 죽음에 임하여 참된 진리를 얻으며 나쁜 것들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육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본다.

플라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를 얻는다.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육신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부나 명예를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2023학년도 수능]

[오답 피하기]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이르면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이 흩어지며 그로 인해 감각이 상실되기에 죽음은 감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그는 감각 경험론의 입장에서 좋고 나쁜은 쾌락과 고통의 감각에 달려있으므로 죽음은 쾌락이나 고통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

②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로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의 해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후의 삶 또한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재앙 중 가장 두려운 재앙으로 여기는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쾌락』]

③ 플라톤은 무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감각과 욕망은 진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며,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었을 때 이데아의 세계에 감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혜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에피쿠로스와 플라톤 모두 현세대에서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며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자신의 삶을 바르게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영혼의 해체로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에 불멸에 대한 갈망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본성인 가사성 또한 즐겁게 느껴진다고 본다.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 삶에 무한한 시간을 더 해주는 방식이 아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필멸성조차 즐길 수 있게 한다.

[에피쿠로스, 『쾌락』]

4. 칸트와 모겐소의 분배 국제 평화론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칸트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영구 평화]를 위해 국가 간의 제약을 의미하는 평화 연맹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 모겐소는 국제적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근거로 국가간의 세력에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권력 획득이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 모겐소의 주장이다.

[정답 찾기]

7. 칸트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관계에서 평화 상태에 들어서기 위하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국가 관계에서 평화상태에 들어서기 위하

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맹을 통해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할 수 있으며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국가의 이익만을 기반으로 하는 합의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를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칸트: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2016학년도 9평]

반면 모겐소는 도덕적 원리 및 윤리의 영역은 정치 영역과 분리되며, 윤리적 수단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 분쟁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 증진만을 추구하여 각국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겐소(X):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2022학년도 6평]

ㄴ. 칸트는 공화정이 원초적 계약의 이념, 즉 사회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에게 공화정체란 법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시민 사회이자, 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체제로, 법의 지배와 삼권분립, 대의제도를 통해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공화정체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 즉 사회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2016학년도 수능]

이 시민적 정치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모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해야만 하는 공화제이다.

[2014학년도 6평]

ㄹ. 모겐소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과 같은 규범적 제한이 평화 유지를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규범적 제한만으로 각 국가의 행동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국가가 실제로는 규범적 제한으로 마련된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겐소는 세력 균형이 가장 효과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주권 국가들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주요 동력이 되는 세계에서 평화는 다음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국제 무대의 권력 투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회 세력의 자기 조절 장치, 즉 세력 균형이다. 나머지 하나는 권력 투쟁에 대한 규범적 제한인데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의 형태를 띤다. 오늘날 그것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 장치 가운데 어느 것도 권력 투쟁을 평화로운 범주 내에서 수행되도록 할 것 같지 않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오답 피하기]

ㄷ. 칸트는 상비군을 반드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칸트는 상비군 폐지를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3항으로 보았고, 상비군 폐지를 급히 서두를 경우, 영구평화의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연기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예비조항 제3항 :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칸트, 『영원한 평화』]

다음은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항과 확정조항 3항이다.

《칸트 ‘영원한 평화(영구평화)’ 요약》

**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적/당위적 개념이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적음을 칸트 역시 인정한다.

1.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6항을 제시한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영구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확정 조항을 정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비적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제1항 장래의 전쟁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밀리에 간직해 두고 맺어진 평화 조약을 평화 조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제2항 어떠한 독립된 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증여로써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 제3항 상비군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제4항 국가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 제5항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제도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제6항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칸트는 예비 조항을 잘 준수했다면, 확정 조항을 준수하여 영원한 평화, 즉 영구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제1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共和制)이어야 한다.
- 제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의 연방[연맹] 체제를 토대로 해야 한다.
- 제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5.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비교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같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 정의로운 분배 구조와 운영으로 개인 간 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노직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물을 취득,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절차적 분배 원리를 준수하여 획득한 소유물이라면 이러한 소유물들이 모인 거시적 차원의 소유 체제도 정의롭다고 본다.

[정답 찾기]

ㄷ.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노직은 소유물의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에만 집중하는 분배적 원리를 ‘정형화된 분배 원리’로 본다.

정형적 분배 정의에 관한 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건 나쁘건, 주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한다. 분배 정의의 통상적 이론들이 왜 받는 사람 쪽에서 서술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주는 사람과 정당하게 교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생산자와 그들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왜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가?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이와 같이 노직은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소유물을 획득하는 주체에만 초점을 맞출 뿐 재화를 주는 수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재분배 원리를 필연적이게 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직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분배적 원리’는 ‘비정형화된 역사적 원리’인데, 이를 쪼개어 분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노직 ‘분배 원리의 분류’ 심화 보충 설명》

1. 정형화/비정형화된 원리

‘정형(定型)’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기준에 따른’이라는 뜻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일정한 형식이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다. 노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가지 사례 [예시]를 제시한다. 지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사회에의 유용도‘에 따른’ 분배,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가 그 사례이다. 노직은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분배 결과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개인이 소유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로 왔는지를 중시하지만, 정형화된 분배 원리는 이를 고려할 수 없기에 노직의 입장에서 부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노직은 비정형화된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직은 정형화된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직은 대부분의 분배 원리는 불가피하게 정형화된 분배 원리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긍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역사적/비역사적 원리

역사적 분배 원리는, 말 그대로 ‘소유의 과정을 시간적 측면에서 축적하는’ 분배 원리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노직은 소유물을 획득하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유의 정당성을 시간적 측면에서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직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분배 원리는 역사적 원리이다.

ㄹ. 롤스와 노직 모두 긍정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롤스

는 개인의 천부적 재능(자연적 능력)은 개인의 소유이며, 사적 소유권을 지닌다고 본다. 하지만 롤스는 개인이 천부적 재능을 통해 얻은 이득은 공공의 자산이라고 본다. 천부적 운에 따른 불균등한 기회의 발현은 부정의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공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스, 『정의론』]

나아가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천부적 재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한 분배 원리를 주장함에서 도출된 것이며, 사회에의 유리한 출발점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롤스의 입장이 그 이유이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따라서 만일 천부적 재능을 통해 얻은 이익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롤스의 입장에서 부정의한 분배의 경우이다. 노직에 따르면 분배 자체가 ‘천부적 재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배 정의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에게 개인의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가기 때문이다.

노직: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2017학년도 9평]

하지만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천부적 재능으로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취득·이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으로 취한 이득일 경우, 이는 부정의한 과정으로 취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교정의 대상’이 된다.

노직: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2016학년도 수능]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를 국가가 교정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7.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의관을 전개한다. 여기서의 계약론은 사회 계약론을 의미하지만, 홉스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와 달리 ‘가상적 이론’을 말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롤스, 『정의론』]

롤스는 자연 상태로 ‘원초적 상황’을 제시하는데, 원초적 상황에서의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과 동시에 타인과 상호무관심한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지닌다.

최초의 상황은 우리에게 원칙의 선택을 부과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동시에 반성적 평형 상태에 있어서의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설명해줄 관점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장 유력하고 대표적인 해석을 나는 원초적 입장이라 부르고자 한다.

[롤스, 『정의론』]

동시에 그들은 무지의 장막을 쓴 채 자신의 신분, 지위 등과 같은 특수한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 이 때문에 롤스는 이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채택하는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의 원리에 입각해 진행된다.

우리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아무렇게나 선정된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속고만 하면 누구나 특정한 어떤 정의관을 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택할 것이고 따라서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롤스, 『정의론』]

나.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가상적 상황으로 원초적 상황을 제시한다.(원초적 상황의 자세한 설명은 7 해설 참고.) 원초적 상황에서의 개인들은 경제학, 심리학과 같은 일반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원초적 상황의 마무리 단계[제한 위원회]이지만, 교육과정상으로 원초적 입장의 전개를 알 필요는 없다.) 롤스는 그 이유로 일반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이론적 지식이나 그들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그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헌법, 즉 정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가장 잘 하도록 해주리라고 생각되는 헌법을 택하게 된다.

[롤스, 『정의론』]

하지만 원초적 상황의 개인들은 자신의 특수적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자신의 판단조차 결여되어 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무엇보다도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하며, 또는 심지어 모험을 몹시 싫어한다든가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성까지도 모르고 있다.

[롤스, 『정의론』]

더불어 롤스는 원초적 상황의 개인들은 개인의 특수적 사실을 넘어, 사회의 문화적·경제적·특수적 사실까지도 무지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나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롤스, 『정의론』]

하지만 그들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특수적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그 내용이야 어떠한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적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롤스, 『정의론』]

따라서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은 선에 대한 자신의 판단, 즉 개인의 특수적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이 속한 사회가 정의롭다는 사회의 특수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 수고하셨습니다 **

◎ 오류 및 오타 문의 :

lunchethics01@gmail.com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